



얘기를 한 이유는 '과학의 대중화'라고 하니까 자꾸 '과학의 저질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과학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주변 부분만 이야기하고 분위기만 막 띄어놓고 끝나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지요.

유대중 (면담자) : 자세히 예를 들면요?

최재천 교수 (피면담자) : 과학 쇼 따위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지요. 그런 쇼를 보고 대학에 과학 전공하려 들어온 학생은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어? 과학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전 재미있을 줄 알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재미만 있고 아무것도 배운 바는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Richard Dawkins도 자기 책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과학의 대중화'는 좋은데, '과학의 몰타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건 가르쳐야 한다.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안돼요.

유대중(면담자) : (고개를 끄덕이며) 인문학을 전공한 저도 좀 어렵더라도 과학 서적을 잘 읽어야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통섭'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재천(피면담자) : 이제는 더 이상 다빈치가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상당한 깊이로 연구하기가 불가능한 세상이지요. 강의하면서 농담조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생물학 잔테 내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대법원장으로 일할 겁니다' 그러면 다들 웃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물학 중에서도 한 분야를 평생 하기도 벅차요.

그렇다면 이제 통섭은 물 건너 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통섭은 한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 '다빈치'는 혼자 통섭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통섭은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생물학자와 경제학자와 철학자가 만났는데 어떻게 소통을 할지가 통섭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돼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열린 마음이겠지요.

1. 위 글에 등장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담의 공간적 상황이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 ② 대화 참여자들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언어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피면담자는 예시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피면담자는 자신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면담자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대화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면담자의 질문 형식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면담자의 면담 질문의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화제를 전환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심층적 발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충 질문이 있다. 한편 추가 답변을 요구할 때 긴장 관계를 이끌어내는 질문도 있는데, 물론 긴장 관계는 피면담자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긴장 관계 질문과 대답 속에서 더 심층적이고 나은 정보들이 교류될 수 있다.

- ①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을 주제로 한 면담에서 독서 습관을 물어보는 것은 인터뷰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므로 상대방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할 수가 있는 부적절한 질문이야.
- ② 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이 언어 표현에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 ③ 피면담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보충 질문을 통해 화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
- ④ 피면담자에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 가능한 부분들을 면담자가 질문한 것은 피면담자를 비판하여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려는 의도 때문이겠군.
- ⑤ 피면담자가 쓴 책의 표제와 내용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점을 면담자가 지적한 것은 더 심층적인 정보 교류를 위한 것일 수 있겠어.

3. <보기>는 면담 기사를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 것의 일부이다. 감상문의 내용을 비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이 면담 기사를 읽게 된 계기는 내가 '과학자의 서재'라는 저자의 책을 읽게 되어서였다. b. 면담 기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과학의 대중화보다 대중의 과학화가 더 위험하다는 피면담자의 생각이었다. c. 나아가 통섭을 하기 위해 다빈치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피면담자의 사고 역시 일리가 있었다. d. 하지만 통섭을 하기 위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소 추상적인 느낌이 들었다. e. 이 면담 기사를 읽은 후, 통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나는 비록 인문학도이지만 과학을 도외시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겠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틈틈이 과학 연구 전문 잡지인 '뉴턴'도 읽게 되었다.

- ① a부분은 면담 기사를 읽게 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군.
- ② 실제 면담 기사에서 '대중의 과학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b는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군.
- ③ c문장 역시 적절하지 않아. 다빈치와 같은 존재가 나오기 힘들다고 한 것이지, 다빈치와 같은 존재가 되자는 것이 아니므로 피면담자가 주장하는 학제 간의 통섭적인 연구는 문제의 여지가 있어.

- ④ d.부분에서 감상자가 언급한 것처럼, 통섭을 위해 지녀야 할 열린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면담 기사에서 설명해 주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
- ⑤ e.부분을 통해, 정보의 수용이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군.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에 관한 글을 교지에 신고자, (가)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고 (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를 썼다.

(가) 개요의 초안

주제 :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개선 방안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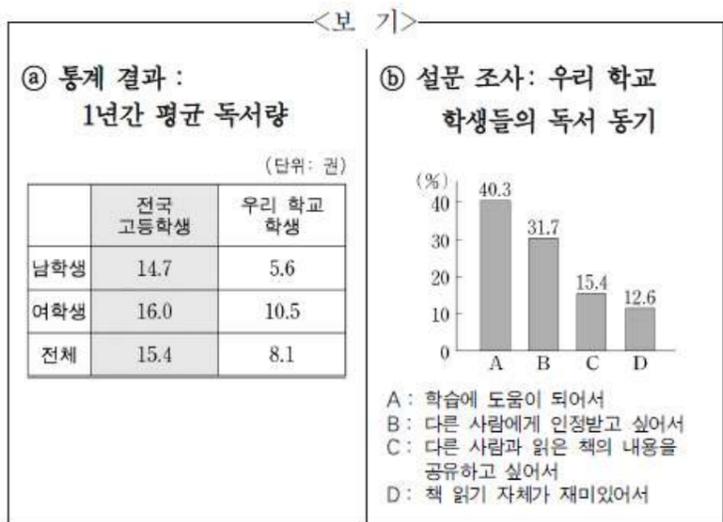
○ 처음 :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 실태 조사  
의 이유를 밝힘 …………… ㉠

○ 중간 :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1. 학생들의 독서량에 관한 실태를 제시함 …… ㉡
2.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은 이유를 제시함 …… ㉢
3. 학생들의 독서 경향에 관한 실태를 제시함 …… ㉣
4.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도서를 주로 읽는  
이유를 제시함 …………… ㉤

○ 끝 : 실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

(나)



㉢ 다른 나라 고등 학생들의 1년간 평균 독서량과 한국 고등 학생들의 독서량 비교  
: 외국 평균 (20.4권) > 전국 (15.4권)

(다) 글의 초안

청소년들에게 독서란 지적인 성장과 인성 계발에 주요한 밑거름이 된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습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독서가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어떠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월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읽은 것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간 읽은 책의 권수와 책을 읽은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독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독서량이 적었다. 한편, 학생들의 약 36%는 1년간 책을 전혀 읽지 않으며 32%는 5권 이하를 읽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학생들 중 52%는 하루에 단 10분도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독서량이 적은 이유로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등이라고 답했다.

독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은 주로 판타지 소설과 자기 계발서 등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읽는 전체 책 중에서 판타지 소설은 약 30%, 자기 계발서는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독서량이 적은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독서를 하는 습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 문구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4. (나)의 자료 및 더 첨가해야 할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 (다)를 수정 및 보완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가)의 ‘중간-1’의 하위 항목으로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를 추가하고, (다)에서 남학생의 독서량이 여학생보다 적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므로 (나)이외의 다른 자료를 통해 해당 원인을 찾고 분석하여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겠어.
- ② ㉠, ㉢를 함께 활용하여 (다)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1년 평균 독서 실태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겠어.
- ③ ㉡를 활용하여 (가)의 ‘중간’에 새로운 항목으로 ‘학생들이 책을 읽는 이유를 제시함.’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 서적을 읽는 학생들의 심리적 배경을 보완하여 설명해야겠어.
- ④ ㉡를 보면 ‘책 읽기 자체가 재미있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으므로, (다)의 결론 부분에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를 기르면 독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명해야겠어.
- ⑤ ㉠와 ㉡를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독서 동기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의 결론 부분에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독서가 필요함을 역설해야겠어.



⑤ ‘넓히다’는 ‘-히-’는 ‘낮추다’와 ‘-추-’ 마찬가지로 품사를 변화시키고 문장 구조도 달라지게 하므로 1-㉔에 들어가겠군.

8.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이것으로 축사를 가룹합니다.
- ②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쳐서 꿈쩍도 못한다.
- ③ 당신은 이제 홀몰이 아니고 만삭의 몸이니까 조심해요.
- ④ 이 사건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 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래층 사람이 알은체를 했다.

9. <보기>를 바탕으로 잘못된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는 과도한 사동과 이중 피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시키다’를 ‘교육하다’로 바꾸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사동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옳다. 한편, 이중 피동이 아닌데 이중 피동으로 오인하는 것들도 있다.

- ① 공장의 폐수를 분리하도록 한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 공장의 폐수를 분리하도록 한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대표적인 예이다.
- ② 전국을 휩쓸고 간 폭우로 인해 꽤인 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을 휩쓸고 간 폭우로 인해 꽤 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③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④ 내가 예쁜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 내가 예쁜 사람을 소개해 줄게
- ⑤ 작년에 준희는 애인에게 차여졌다. -> 작년에 준희는 애인에게 채었다.

<연계,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후반에 발견된 자기(磁氣) 열량 효과는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자기 냉각 기술에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로부터 자기 냉각 기술은 오늘날 극저온을 만드는 고급 기술로 발전하였다. ㉠일반 냉장고는 가스 냉매가 압축될 때 열을 방출하고 팽창될 때 열을 흡수하는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이용하여 냉장고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시킨다. 그러나 가스 냉매는 일정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응고되어 냉매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자기 냉각 기술이 일반 냉장고를 대신할 수 있는 냉장고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기 냉각

기술에 사용되는 자기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따라 냉장고가 작동되는 온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냉각 기술에 사용하기 적합한 자기 물질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실온에서 작동 가능한 실온 자기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자기 물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 물질은 자화(磁化)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물질의 자화는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의 세기 및 자기 물질에 들어 있는 단위 부피당 자기 쌍극자의 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자기 쌍극자는 자기 물질 속에 존재하는 초소형 자석을 의미한다. 자기 물질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로 구분된다. 강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되었을 때에도 자기적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이며, 상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물질이다. 강자성체는 온도를 올리면 일정 온도에서 상자성체로 상전이를 하는데, 이때 자기 물질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자기 열량 효과는 자기 물질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이 열을 발산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자기 냉장고는 이 효과를 이용한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통해 냉장고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이 순환 과정은 열 출입이 없는 두 과정과 자기장이 일정한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열 출입이 없는 열역학적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자기 냉장고에서 열역학적 순환 과정은 다음의 I, II, III, IV 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과정 I에서는, 자기 쌍극자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던, 온도가 T인 작용물질에 외부와의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작용물질의 쌍극자들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작용물질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때 자기장이 강할수록 작용물질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과정 II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허용하면 이 작용물질은 열을 방출하고 차가워진다. 과정 III에서는, 다시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하면 쌍극자의 배열이 무질서해지면서 작용물질의 온도가 하강한다. 과정 IV에서는,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허용하면 이 작용물질은 열을 흡수하고 온도가 상승하여 초기 온도 T로 복귀하면서 1회의 순환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작용물질이 열을 흡수할 때는 작용물질을 냉장고 내부와 접촉시키고 열을 방출할 때에는 냉장고 외부와 접촉시킨다. 이를 반복하면 작용물질은 냉장고의 내부에서 외부로 열을 퍼내는 열펌프의 역할을 하게 된다.

효율이 좋은 자기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온도에서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이 큰 자기 물질을 작용물질로 사용해야 한다. 자기 냉장고에서 1회의 순환 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열량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과 후의 엔트로피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엔트로피는 물질의 자기 상태가 변하는 임계온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작용물질이 상전이하는 임계온도가 냉장고의 작동 온도 근처에 있을 때 그것의 자기 냉각 효과가 크다. 최근에는 임계온도가 실온에 가까운 물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한 실온 자기 냉장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 냉장고의 가스 냉매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자기 물질을 활용한 자기 냉각 기술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 ② 물질의 자화는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
- ③ 자기 냉장고의 열역학적 순환 과정 중, 과정 I에서 작용물질의 자화가 증가하며, 과정 II에서는 작용물질의 온도가 내려간다.
- ④ 자기 냉장고의 열역학적 순환 과정 중, 과정 III에서는 작용물질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과정 IV에서는 작용물질을 냉장고 내부와 접촉시킨다.
- ⑤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이 크지 않은 물질을 작용물질로 사용하여 자기 냉장고를 만든다면 그 효율이 낮을 수 있다.

11.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작용물질의 부피 변화는 ㉡에서 작용물질의 온도 변화와 같은 작용을 한다.
- ② ㉠에서 압력의 변화는 ㉡에서 자기장의 변화에 대응한다.
- ③ ㉠에서 냉매가 하는 역할을 ㉡에서는 자기 물질이 한다.
- ④ ㉠과 ㉡은 모두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이용한다.
- ⑤ ㉠과 ㉡에는 모두 열펌프의 기능이 있다.

12.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물질들의 자기적 특성에 관계없이 냉장고가 작동되는 온도 범위는 모두 동일하다.
- ② 자기 물질이 아닌 물체는 모두 강자성체의 성질을 지닌다.
- ③ 강자성체에 온도를 올리면, 일정 온도에서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되었을 때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물질로 상전이를 할 수 있다.
- ④ 열역학적 순환 과정 중에서, 열펌프의 역할을 하는 작용물질이 열을 흡수할 때 냉장고의 외부와 이 작용물질을 접촉시키는 이유는 효율이 좋은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 ⑤ 자기 물질에 외부에서 더 강한 자기장이 가해질수록 열의 방출량은 감소한다.

13.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실온 자기 냉장고'에 사용될 작용물질을 찾으려 할 때, A~E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자기 물질 A~E 각각의 임계온도에서 자기 물질에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감소한 엔트로피에 대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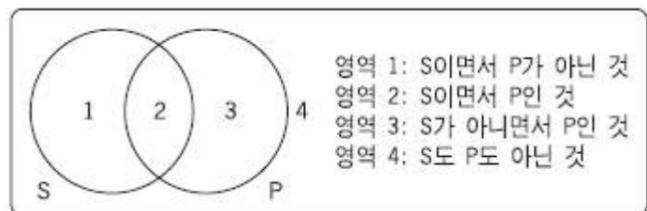
자기 물질	임계온도(°C)	걸어 준 자기장(T)	엔트로피 감소량(J/kgK)
A	-5	5	2.75
B	10	1	1.52
C	18	1	2.61
D	21	5	2.60
E	42	5	1.80

(단, 실온은 섭씨 10도에서 23도라고 가정한다.)

- ① A는 B에 비해 걸어준 자기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실온 자기 냉장고로 더욱 적합하다.
- ② A는 B에 비해 임계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실온 자기 냉장고로 더욱 적합하다.
- ③ C는 B에 비해 걸어준 자기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감소량이 크기 때문에 실온 자기 냉장고로 더욱 적합하다.
- ④ D는 B에 비해 걸어 준 자기장과 관계없이 엔트로피 감소량이 더 크기 때문에 실온 자기 냉장고로 더욱 적합하다.
- ⑤ E는 D에 비해 자기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감소량이 크기 때문에 실온 자기 냉장고로 더욱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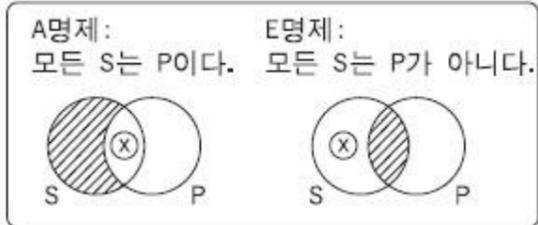
<비연계,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혹은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 두 단어(개념, 집합 혹은 범주)의 포함과 배제 관계를 서술하는 명제를 '정언 명제'라 한다. 그리고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에서처럼 정언 명제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를 '정언 논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언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19세기 논리학자인 벤이 제시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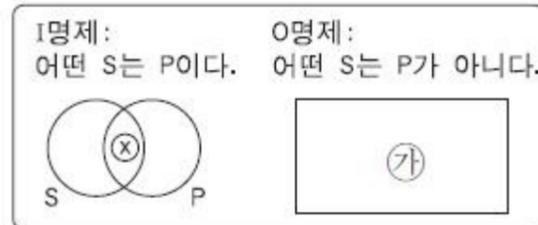


(나)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우선 정언명제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정언명제의 벤 다이어그램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두 원으로 되어 있다. 보통 왼쪽의 원은 주어 집합 'S'를, 오른쪽의 원은 술어 집합 'P'를 가리킨다. 벤 다이어그램은 옆의 그림처럼 네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다 다음 세 가지 세항을 표시한다. 첫째, '어떤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경우, 즉 원소가 없는 부분은 '빗금'으로

나타낸다. 둘째, '어떤 영역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내용의 경우, 즉 원소가 있는 부분은 '⊗'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어떤 영역에 적어도 하나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의 경우, 즉 원소가 있고 없음을 모르는 부분은 표식 없이 빈 채로 둔다.



(다) 정언 명제는 A, E, I, O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의의 편의상 정언 명제의 주어 집합 S에서 논의되는 범위가 '모든'일 경우 주어 집합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A명제'와 'E명제'는 왼쪽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나타낼 수 있다. 우선, 'A명제'는 만약 어떤 것이 S에 속한다면 그것은 P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S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에는 빗금이, 영역2에는 ⊗가 표시된다. 'E명제'는 만약 어떤 것이 S에 속한다면 그것은 P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S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인 영역2에는 빗금이, 영역1에는 ⊗가 표시된다.



(라) 한편 정언 명제의 주어 집합 S에서 논의되는 범위가 '어떤'일 경우, 'I명제'와 'O명제'는 오른쪽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나타낼 수 있다. 'I명제'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고 그것이 또한 P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S이면서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인 영역, 즉 영역2가 ⊗로 표시된다.

(마) 한편 정언 명제의 주어 집합 S에서 논의되는 범위가 '어떤'일 경우, 'I명제'와 'O명제'는 오른쪽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나타낼 수 있다. 'I명제'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인 영역, 즉 영역2가 ⊗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O명제'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고 그것은 P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S이면서 P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1이 ⊗로 표시된다.

(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라는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사과'를 'S'라 하고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을 'P'라고 한다면, 이 논증의 전제는 '모든 S는 P이다'라는 A명제이고, 결론은 '어떤 S는 P이다'라는 I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 결론 I명제는 영역2, 즉 S와 P가 겹치는 부분에 '어떤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제 A명제에도 영역2에 어떤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있다. 따

라서 전제가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논증은 타당하다.

14.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언 명제의 진위 여부를 입증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② 명제들 간의 관계에서, 결론이 전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논증은 타당하다.
- ③ S이면서 동시에 P인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면, 중첩되는 영역에는 빗금이 칠해지게 되며, 이때 ⊗는 수량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 ④ I나 O명제의 벤 다이어그램 표기에는 빗금이 필요하지 않다.
- 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정언 논리에서, 그림 상에 표식이 없이 빈 채로 둔 것은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15.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언 논리를 더 심화하여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다. A가 참이라면, I도 참이다. 하지만 I가 참이라는 전제가 A가 참이라는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E가 참이라면 O도 참이다. 하지만 그 역은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A가 참이라면, E는 거짓이다. 하지만 A가 거짓이라고 해서 E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 즉 하나가 참일 때 다른 하나는 거짓이지만, 하나가 거짓일 때 다른 하나는 거짓일 수도 있는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말한다.

반대 관계와 달리 모순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A가 참이면 O는 반드시 거짓이다. 또한 A가 거짓이면 O는 반드시 참이다. 즉, 어느 하나가 참일 때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고, 어느 하나가 거짓일 때, 다른 하나가 반드시 참이라면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모순 관계라고 한다. E와 I의 관계 역시 이와 같다.

- ①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가 참이면,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역시 참이겠군.
- ② '모든 사람은 네 발 동물이 아니다.'가 거짓이면, '어떤 사람은 네 발 동물이다.'는 참이겠군.
- ③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가 참이면,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 아니다'는 거짓이겠어.
- ④ '모든 사람은 네 발 동물이 아니다.'명제와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는 '어떤 사람은 네 발 동물이 아니다.'의 명제와 서로 모순 관계이겠군.
- ⑤ '모든 사람은 네 발 동물이 아니다.'와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는, '어떤 사람은 네 발 동물이다.'와 모순 관계에 있지 않겠군.

<연계,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사회는 패전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해졌고, 정당의 난립, 실업자들의 폭동, 그리고 나치의 등장 등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잠시나마 불편한 현실을 잊기 위해 오락적인 연극들에만 쏠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정치·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쏟았다. 정치극과 기록극의 창시자로 알려진 에르빈 피스카토르는 연극이 계급 의식을 일깨우고 혁명 사상을 고취하는 정치적 수단일 뿐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실적-사실적 재현을 통해 관객의 감정에 호소하여 자신의 이론에 동조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브레히트는 그러한 연극 형식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런 대안점이 서사적 기법을 희곡에 도입한 서사극의 등장이었다. 브레히트는 기존의 전통극이 당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 끝에 전통극의 익숙한 형식을 깨는 일종의 대안으로서, 실험적인 색채가 짙은 서사극 이론을 제시했다. 서사극은 전통적 연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극적 환상의 제시 및 극적 사건과 관객의 동일시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그는 관객이 그의 연극을 보면서 연극적 상황에 혼동하지 않기를 바랐다. 관객이 그의 연극을 통해 오히려 그 속에 숨어있는 심오한 세상-비판적 시각을 지니기를 원했다. 즉, 서사극은 '아무 근거 없이는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다. 전통극은 관객이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극 중 인물들과 동일시되어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음으로써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극을 통해 배출하도록 해 주는 '카타르시스 기능'을 중시했다. 그러나 서사극은 관객이 극 중 사건이나 인물 속에 몰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극과의 거리를 유지하여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브레히트는 관객이 감정 이입의 상태에 들어갈 경우, 무대 위에서 보이는 배우의 시각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굳게 지킴으로써 관객이 밭 딛고 있는 현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그는 '소격 효과'를 유발하는 전략들을 사용했다. 소격 효과란 극을 통해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낯설게 만들으로써 관객이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격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감정 이입이다. 즉, 자기 판단이나 상상력 없이 무대에 적응하여 자연의 객체가 되는 현실에 반대하는 것이다. 브레히트가 강조한 소격 효과를 위해서는 배우는 완전한 변신을 포기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관객 역시 배우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가 소격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다양하다. 우선 극의 구성 측면에서 브레히트는 각 장면마다 그 장면

대한 설명을 미리 알려 주는 방식, 즉 서언을 사용해 일어날 사건에 대한 관객의 호기심을 없애 버리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냉정한 자세로 극을 보게 했다. 서언과 발문을 사용하여 실제 사건을 본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극의 각 장면을 인과성을 무시한 채 병렬적으로 나열하거나 극 속에 또 다른 극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극 중 사건에 몰입하는 것을 막고 극 그 자체에 대해 사고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 두 번째로, 배우와 관객의 관계 측면에서 그가 제시한 전략의 핵심은 관객으로 하여금 배우가 말 그대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해설자가 등장한다든지, 극 중 인물이 갑자기 관객에게 자신의 역할이나 사건에 대한 해설을 한다든지, 연기하는 도중에 어울리지 않는 합창이나 노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배우는 관객에게 자신이 연기하는 극 중 인물에 감정 이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비판적 거리감을 확보하게 했다. 셋째로, 무대 기술상의 측면에서도 극의 시작부터 관객에게 무대 장치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장면이 전환될 때 변화되는 무대의 뒤편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극이 연출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관객의 극적 환상을 차단하려고 했다. 극중극 무대 위에 또 다른 연극과 관객의 관계가 제시됨을 보면서 관객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

브레히트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 관객들이 극을 통해 오히려 극 밖의 자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했다. 연극을 통해 당대 정치 현실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던 브레히트의 실천적 사상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의 전범으로 남아 있다. 또한 그가 제시한 소격 효과의 전략들은 그 이후 전위적인 실험극과 반사실주의적인 현대 연극들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연극계뿐만 아니라 영화계와 예술의 다방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6.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브레히트는 카타르시스의 기능이 극과의 거리를 유지한 이성적 판단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 ② 브레히트는 극적 환상이 때로는 당대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그렇기에 거리 두기와 비판적 자세를 강조하였다.
- ③ 브레히트는 재현의 측면을 넘어 관객으로서의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다수의 전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 ④ 브레히트는 의도적 무대 장치의 노출이 관객들로 하여금 극적 환상에서 탈피하게 하고 배우와의 공감을 일으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브레히트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다수의 극적 기법들이 관객의 이성적 판단을 유보하여 그들의 현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극과 B극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극>  
 작가노트 : 모든 등장 인물은 무대에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며, 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 가운데로 나왔다가 그 역할이 끝나면 제자리에 돌아가서 앉는다. 다시 말해서, 등장인물들은 자기 역할이 아닌 장면에서도 무대에 있어야 한다.  
 (중략)  
 (소장이 관객들에게 말한다.)  
 소장 : 사고가 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좋은 노조 지부장에게 수습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던 거지요. 방금 여러분도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불행 중 다행이랄까, 이번 사고, 고의적 자살 행위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략)  
 선생 : 갱 속으로 들여 보내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애들은 전혀 희망이 없어요! (합창단을 향하여 지휘봉을 휘두르며) 자 노래를 하라고 노래를!  
 합창단 :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우우~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B극>  
 남자(이 극의 남자 주인공이자 사기꾼) : (이야기책을 낭독한다.) 옛날에, 옛날에, 한 사기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나 뺨 한 잎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로워졌으므로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누구나 젊음의 한 시기엔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중략)  
 마침내 그 젊은 사기꾼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이 있는 최고급 저택모자와 벵타이, 호사스런 의복, 그리고 이 건장한 하인까지 빌렸던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사십오 분 동안만 그가 주인이며 다음엔 되 돌려 주어야 합니다. 벵타이는 이십팔 분, 모자는 십구 분 오십 초, 그 밖에 다른 물건에도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자로부터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맞선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 ① A극의 '작가 노트'에 표기된 대로 등장인물이 자기 역할이 아닌 장면에서도 무대에 있다면 관객의 극적 환상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겠군.
- ② A극의 소장의 대사를 들으면서 관객들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촉발될 것 같아.
- ③ A극에 등장하는 합창단의 노래는 선생의 대화 상황과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극적 상황을 익숙하고 당연하게 만드는 효과를 역설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겠어.
- ④ B극에 등장하는 남자 배우가, 자신이 낭독하는 이야기 책의 인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을 통해 관객은 현재 자신 역시 연극을 관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
- ⑤ A극과 B극을 통해 관객은 극 밖의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겠군.

<연계,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B형이 볼 지문>  
 (가) 사름 사름마다 이 말슴 드러스라.  
 이 말슴 아니면 사름이더라도 ㉠사름 아니니  
 이 말슴 너디 말오 비호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버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父母(부모)웃 아니시면 내 모미 업슬랏다.  
 이 덕을 갑프려 하니 하늘 ㄴ가 업스랏다. <제2수>  
 동과 향것과를 뒤라셔 삼기신고.  
 벌과 가여미사 이 뜨들 몬져 아니,  
 훈 므스매 두 뜯 업시 속이지나 마옵새이다. <제3수>  
 지아비 받 갈라 간 더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디 눈썹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A]뉘(형)님 자신 저줄 내 조쳐 머궁이다.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스랑이아.  
 兄弟(형제)웃 不和(불화)하면 ㉡개도티라 흐리라. <제5수>  
 늘그니는 父母(부모) 곧고 얼우는 뉘(형) ㄴ트니,  
 곧툃디 不恭(불공)하면 어디가 다롤고.  
 날료셔 므디어시든 절호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오륜가, 주세봉-  
 (나)  
 <B형이 볼 지문>  
 칭천에 떴는 ㉢기러기 한 쌍 한양성대에 잠간 들러 쉬여 가

렵

[B]이리로서 저리로 갈 제 내 소식 들어다가 남의게 전하고 저리로서 이리로 올 제 님의 소식 드러 내손디 브디 들러 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라 밧비 가는 길히니 전할 동 말 동 하여라.

- 작자 미상 -

(인터넷 수능 97P와 다른 버전입니다. 내용이 차이가 나니 꼭 비교하세요.)

<A형이 볼 지문>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들으려으나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씀 잊지 않고 배우고야 말 것이니라. <제1수>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님 아니시면 내 몸이 없었으리라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으리로다. <제2수>

종과 주인을 누가 만드셨나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아나니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맏시다. <제3수>

지아비 밭 갈러 간 데 밥 광주리 이고 가서 밥상을 들되 눈썹에 맞추는구나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제4수>

[A]형님 잡수신 젓을 내 따라 먹습니다.

어허 저 아우야 어머님 너 사랑이야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어디가 다를까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 것이니라. <제6수>

(나)

청천에 떠 있는 기러기 한 쌍 한양성대에 잠깐 들려 쉬어가 럽

[B]여기서 저기로 갈 때 내 소식 님에게 전하고 저기서 여기로 올 때 님 소식 내게 부디 들려서 전해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바쁘게 가는 길이니 전할동 말동 하구나

- 작자 미상 -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1수에 등장하는 이 ‘말씀(말씀)’이 2수부터 6수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 ② (가)의 1수에 등장하는 화자에 따르면, ㉠이 ㉡으로 되기 위

해서는 1수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③ (나)에서 ㉢이 입을 보러 가는 길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다.

④ (가)의 [A]는 (나)의 [B]와 달리 시적 화자를 달리하여 극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다.

⑤ (가)의 2수와 (나)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9. (가)와 <보기>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이 두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님금과 백성(百姓)과 스이 하늘과 짜히로디  
내의 설운 일을 다 아로려 흐시거든  
우리들 슬진 미나리를 혼자 엇디 머그리 - 2수 -

[A형을 위한 현대어 풀이]

임금과 백성 사이는 하늘과 땅인 바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아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라고 좋은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형아 아이야 네슬홀 문져보와

뉘손디 타나관디 양지조차 ㄹ튼손다

훈 어미 젓 먹고 길러나이셔 닷맛음을 먹디마라 - 3수-

- 훈민가, 정철 -

[A형을 위한 현대어 풀이]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자

누구의 손에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같은가

한 어미 젓을 먹고 자라났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마라

① (가)의 3수에 등장하는 자연물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아는 대상들로, <보기>의 2수에 등장하는 화자 역시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겠군.

② (가)의 3수에 등장하는 ‘누구’는 <보기>의 2수에 등장하는 ‘우리’와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겠군.

③ (가)의 5수에 ‘형님 잡수신 젓을 내 따라 먹는’ 행위는 <보기>의 3수의 설명과도 같이 ‘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것과 관련이 있겠군.

④ <보기>의 2수는 (가)의 4수와 마찬가지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군.

⑤ <보기>의 3수에 등장하는 ‘딴 마음’은 (가)의 5수에 등장하는 ‘불화’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시어이겠군.

20. (나)가 <보기>로 바뀌었을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청천에 떠서 울고가난 외기력이 나지말고 내말 드러  
 한양성내에 잠간 들너 부디 내말 닛지말고 웨웨터 불너 니르  
 기를 월 황혼 계워갈제 적막 공규\* 에 더진듯 홀로 안겨 님  
 글여 참아 못 살네라 하고 부디 이 한 말을 전하여 쥬렴  
 우리도 님 보라 빗비 가웁난 길이오매 전할동 말동 하여오

\* 공규 - 오랫동안 남편이 없이 아내 혼자 사는 방

- ①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절제하여 표현해야겠어.
- ② 말을 건네는 어투를 새롭게 첨가하여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야겠군.
- ③ 기러기와 떨어져 있기에, 더욱 외로운 화자의 마음이 좀 더 드러나도록 고쳐야겠군.
- ④ 화자가 위치한 공간을 한양 성내로 설정한 원시의 의도는 그대로 유지해야겠군.
- ⑤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좀더 구체화하고 부사어를 삽입하여 정서를 더욱 강조해야겠어.

<연계,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광문은 걸인이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움막에는 광문과 병이 든 거지 아이만 남고 다른 거지들은 모두 구걸하러 나가고 없었다. 거지 아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 광문이 불쌍히 여겨 밥을 얻으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고 말았다. 걸인들이 돌아와 광문이 아이를 죽였다고 하면서 광문을 내쫓았다. 광문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마을 집에 숨어들었다가 집주인에게 들켜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진한 광문의 말을 들은 주인은 광문을 놓아 주었다.

광문은 사례를 하고 거적때기를 하나 얻어 가지고 가 버렸다. 집주인은 괴상하게 여겨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다.

여러 거지들이 한 시체를 끌어 수포교까지 오더니 그 다리 밑에다 버리는 것이었다. 광문은 다리 밑에 숨었다가 거적때기로 돌돌 싸서 등에다 걸머지고 서대문 밖 공동묘지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이것을 숨어서 보고 있던 집주인은 달려들어 광문의 손을 잡았다. 광문은 이때에 전후 사정을 남김없이 다 말했다.

이것을 듣고 감탄한 나머지 광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주는 등 후대하였다. 마침내 광문을 어느 약장사하는 부잣집에 천거하여 주었다.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한 지 오래된 어느 날, 그 집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며 힐끔힐끔 돌아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살피고 다시 나가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에 못마땅한 눈치였다. 불일을 다 보고 돌아온 주인은 방안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며 광문을 노려보고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얼굴빛을 고치고는 말이 없었다.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만 묵묵히 일할 뿐 주인 눈치가 불쾌하다고 해서 무단히 그 집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이 지난 뒤 그 집주인의 처조카 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주인보고 하는 말이,  
 “저번에 아저씨한테 돈을 좀 취하고자 찾아 왔었는데 마침 안 계셔서 방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갔는데 아마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②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후회하며 광문에게 사과를 하였다.  
 “나는 용졸한 사람ियो. 공연히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제부터는 그대를 대할 면목조차 없습니다.”  
 하며 아는 사람이나 친구인 부자나 또는 큰 장사꾼 그리고 종실과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광문을 행실이 옳고 바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칭찬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으레 광문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느덧 두서너 달 사이에 사대부들까지도 광문을 옛날 어진 사람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에 서울 장안에서는 모두들 광문을 후대하여 그를 천거해 준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보고 또한 약장사하는 부자 역시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하였다. 돈놀이하는 사람이 전당포를 하는 데 있어서 목걸이, 옷, 그릇, 그림집, 토지 및 증문서 등 물품을 담보로 영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광문은 아무런 전당을 잡히지 않고도 천금을 대부 받을 신임이 있었다.

그러나 광문은 지극히 얼굴이 못났었다. 말썹씨도 없어서 사람을 움직일만한 능력이 없고 입은 커서 주먹 둘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아주 심한 장난꾸러기여서 별별 짓을 다 하였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상대방을 서로 헐어서 말하기를  
 “네 형이 달문이지.”  
 하면 못난 것을 상징하므로 큰 욕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달문이 광문의 별명이었던 까닭이었다.

광문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웃통을 벗어젖히고 덤벼들며 무엇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옆드려서 땅에다 금을 긋고 잘잘못을 가리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온 장터 사람들은 모두 웃고, 싸우던 사람도 또한 웃으며 헤어져 버린다.

광문은 나이 사십이 넘도록 머리를 땅은 총각이었다. 사람들이 장가를 권하면,  
 “어여쁜 계집의 얼굴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법이요. 그러나 이것은 남자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지요. 여자도 또한 잘생긴 남자를 희망하거든요. 나는 이런 추한 얼굴을 하고 서야 어찌 계집이 따르려고요.”

“또 집을 장만하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 처자가 없는데 집을 장만해서 무엇하  
 오. 아침에 일어나 노래 부르며 시내에 들어가 밥을 얻어  
 ㉠ 먹고 해가 저물면 부잣집 문턱에서 잔대도 장안 호수가 팔  
 만인데 날마다 그 장소를 옮겨도 내 생전에 다 끝나지 못  
 할 것이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 박지원, 「광문자전」

2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대화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박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 ② 여러 개의 삽화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여 주인공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이야기마다 정보 전달자를 달리 설정하여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당대 현실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은 비천한 거지인 광문의 순진성과 거짓 없는 인격을 그려 양반이나 서민이나 인간은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여 권모술수와 허위의식이 판을 치던 당시의 양반사회를 은근히 풍자하고 양반 계층의 각성을 요구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기존 소설이 지니고 있었던 재자가인형의 주인공 설정을 탈피하여 비천한 신분을 주인공으로 하였다는 점, 조선 후기의 경제상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악인과 선인의 대립구조 및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① 광문이 거지 아이의 시신을 잘 물어주는 것을 보니 광문의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지는군.
- ② 광문이 주변 사람들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순수한 인격이 주변 인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 ③ 광문의 선행이 오히려 약장사하는 집주인에게 의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니 고전 소설의 전형적 특징인 선악의 대립구조에서 탈피했다고 봐야 하겠군.
- ④ 약장사하는 부자가 광문에게 사과하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부자와도 같은 태도가 양반 사회에서도 필요함을 드러낼 수 있겠군.

⑤ 광문이 추한 얼굴 때문에 장가드는 것을 사양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인물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작가는 허위를 일삼는 양반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했겠군.

23. 위 글과 관련하여 던질 수 있는 <보기>의 [질문]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 기출>

— <보 기> —

모든 예술 중에서 소설은 가장 재미있게 내가 사는 세계는 살 만한 세계인가 아닌가를 반성케 한다. 일상성 속에 매몰된 의식에 그 반성은 채찍과도 같은 역할을 맡아 한다. 이 세계는 과연 살 만한 세계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

- 김 현, <소설은 왜 읽는가>

- ① 공연히 남을 불신하는 풍조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지는 않은가?
- ② 요즘 우리 사회는 내면을 다지기보다 외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 ③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신용 사회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 ④ 주인공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강한 의지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 ⑤ 불우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점차 각박해지는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 1. 5 / 2. 5 / 3. 3 / 4. 1 / 5. 5
- 6. 3 / 7. 5 / 8. 5 / 9. 5 / 10. 4
- 11. 1 / 12. 3 / 13. 3 / 14. 4 / 15. 4
- 16. 1 / 17. 3 / 18. 4 / 19. 2 / 20. 5
- 21. 2 / 22. 3 / 23. 4